

<글말교실 소감문>

2021년도 2학기 교양 수업을 들으며 해당 수업과 관련하여 감상문을 써야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교수님을 통해 글말교실 일대일 글쓰기 코칭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감상문을 쓰기엔 부담감도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써야할 지 감이 잘 안 와서 초안으로 작성한 후 교수님께 첨삭을 받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일대일 코칭 프로그램의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코칭을 받는 방식이거나, 업로드한 저의 글이 공개되는 방식이었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을 업로드해도 해당 관련자들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신청한 후에는 지정한 교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셨고 개인적으로 면담 방법이나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제가 직접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문맥의 흐름이나 문법에 어긋나는 건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수정해주셨고, 제가 직접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조언 또한 적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조언만 해주시거나 고쳐주시지 않았더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텐데, 교수님께서 한 글자도 수정해주시고, 문맥의 흐름이 이상했다면 해당 문단을 수정해주시거나, 어떠한 방향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넣으면 좋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조언을 해주신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교수님과의 연결방법은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코로나 시국인만큼 비대면을 통해 메일, ZOOM 등 교수님께서 먼저 제안해주셨고 ZOOM의 경우에는 교수님과 시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메일을 통한 피드백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자기소개서나 감상문, 보고서 등을 쓸 때 많은 학우들이 글말 교실을 통한 일대일 코칭을 꼭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주변 친구들에게 많은 소개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일대일 코칭을 신청한 후, 신청 완료 등의 표시가 없었고 바로 연락이 오지 않아서 1~2일정도 기다리다가 직접 교양대학에 전화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공지사항을 보았을 때에는 답글을 확인하라고 적혀있었지만 답글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기다려도 아무 연락이 없고 신청이 된 건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홍보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말교실 특강은 ON국민 어플로 많은 알림을 받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글말교실 특강보다 학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첨삭 코칭인 일대일 코칭에 대해서도 더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해당 교양과목을 수강하면서 교수님께서 따로 가상대학에 공지를 올려주셔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는 글말교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대일 코칭을 신청하는 것보다 ON국민 홈페이지에 따로 배너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새롭게 해보며 더 많은 학우들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 더욱 많은 참여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글말교실을 진행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